



“과자 사먹고 싶은 맘 꼭 참고 모았어요”

“내가 모은 돈으로 어려운 친구들을 도울 수 있다가 기쁜 마음으로 모았어요.”

11월 7일, 부산 금화사 초등학교(교장 김광호) 학생들의 표정이 한결같이 밝다. 저마다 원숭이저금통 하나씩을 앞에 놓은 아이들의 얼굴엔 뿌듯함이 넘친다. 현대불교신문에서 원숭이저금통을 분양 받은 지 6개월 남짓. 그동안 한푼 두푼 아껴 채워온 원숭이저금통을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책상위에 올려놓았다.

속이 짝 차 제법 무거운 원숭이도 있고, 어떤 원숭이는 반도 차지 않아 소리만 요란한 녀석도 있다. 동전 몇 개에 만 원짜리 지폐가 들어있는가 하면 백원, 오백원, 십 원까지 동전으로만 가득 채워진 저금통도 있다.

“그동안 원숭이 저금통 채우는 것을 게을리 하다가 오늘 거둔다고 하니깐 만 원짜리를 급하게 넣은 사람도 있지?” 저금통 분양을 제안한 김광호 법사의 지긋은 질문에 아이들의 웃음보가 터졌다.

원숭이 저금통 분양에 전교생 34명이 모두 참여했기에 이날 첫 시간은 원

부산 금화사 초등학교 어린이 34명, 나눔 저금통 전달



부산 금화사 초등학교 학생들이 6개월 동안 채워온 원숭이저금통을 들어보이며 활짝 웃고 있다.

숭이 저금통을 거두며 보시의 의미를 되새기는 수업으로 진행됐다. 저금통에 돈을 모으며 느낀 점을 얘기하는 시

간이 이어졌다. “중간에 과자 사먹고 싶어 껌뻐 뻐 했지만 유혹을 참았어요.”

정도의 솔직한 고백이다. 정도의 말에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이던 소년이 “처음엔 과자 먹고 싶어 껌뻐기도

했는데 너무 돈이 적어 다시 열심히 모았다”며 저금통을 들어보였다.

그러나 전국 최고의 어린이법회를 자부하는 금화사 초등학교 학생들이 훨씬 과자 타령만 할리 없다.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선영이는 “평소에 천사원에서 장애인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했는데 저금통을 통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참 좋다”는 말로 보시행의 즐거움을 전했다.

김광호 법사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려운 친구들을 돕겠다는 마음을 일으켜 함께 동참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며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줬다는 생각조차 있어버려야 진정한 보시”라고 덧붙였다.

이날 거둔 저금통은 모두 38개. 학생 수는 34명이었지만 부모님이 참여했거나 집에 있던 꼬끼리 저금통까지 들고 온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총 45만8천190원을 모금한 학생들은 이날 또 다시 원숭이저금통을 분양 받았다. 배고픈 친구들이 없어질 때까지, 저금통에 사랑을 모으겠다는 다짐과 함께.

글·사진/부산=천미희 기자

■알립니다

연말을 맞아 본지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1차로 11월말 서울경기지역 12개 종합학교에 재학중인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금 접수에 많은 동참바라며, 올 한해 전국에 배포한 '나눔의 저금통'도 수거하고자 합니다. 개인은 본사로 직접 접수해 주시고,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저금통을 모아 직접 개봉하여 온라인으로 입금한 뒤, 본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나눔의 손잡기 운동

부산 금화사 초등학교
- 45만8천190원

김제철 최성영 박상욱씨등
- 42만9천900원

총 누적금액 27,717,660원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저금통을 채워서 보내주세요.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 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나눠 드립니다

사람,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훈보가 전개중인 '우리 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emblem을 공동 사용합니다.

“어르신들 많이 드세요”

대구 사찰보존연구회 자비석림회 경로잔치



화성양로원과 치매 노인전문 요양시설인 여래원 어르신 50여명이 맛있게 점심공양을 하고 있다.

“정말 음식이 맛있어요. 모처럼 밖에 나오니 바람도 쐬니 너무 좋은 걸...”

11월 10일 대구시 북구 종합유동단지내 공동어시장 식당에서 점심공양을 하는 최후남(89, 화성양로원) 할머니가 감사사를 연발한다.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에 의지해 공양하는 어르신들의 주름진 얼굴에도 웃음꽃이 핀다.

대구 사찰보존연구회(회장 효신) 산하 자비석림회 광덕이 회장이 개최한 경로잔치에는 대구시내 화성 양로원과

치매 노인전문 요양시설인 여래원 어르신 50여명이 참석했다. 매년 화성양로원, 성보재활원을 직접 찾아가 경로잔치를 벌였던 광 회장. 올해는 사찰보존 연구회 회장 효신 스님의 조언을 받아들여 나들이를 겸한 경로잔치로 마련했다. 광 회장은 이날 경로잔치가 열린 자신의 식당에 일반손님을 받지 않았으며, 자비석림회 회원 10여명도 동참해 어르신들의 공양 수발을 들었다.

글·사진/대구=배지선 기자

자재공덕회 모회원 후원자를 찾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자재공덕회 모회원(옛 자재정사 양로원)이 정부방침에 따라 지난 7월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한 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1년 문을 연 모회원원장 보각은 현재 할머니 60여명, 비구니스님 10여명 등 70여명이 생활하는 비교적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올 7월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완전 무료양로서설로 성격을 바꿨다.

후원회의 기부금 외에 자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판매가 유일한 소득인 모회원은 법정인원과 시설을 확보하기에도 벅찬 형편이다. 더구나 비교적 나은 시설과 규모 탓에 수용인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곤란을 겪고 있다. 현재 은행 대출 등으로 어렵게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 실정.

모회원 재무를 맡고 있는 지우 스님은 “앞으로 노인 요양시설로서 목적을 전환하는 2006년 전까지는 국고보조 없이 버텨야하는 상황”이라며 불자들의 운정을 기대했다. (031)356-5799 (농협 207076-51-041279 예금주 자재공덕회) 조용수 기자

좋은벗들 등에 1천만원 기탁

청우불교원 이사장 김재웅 법사



김재웅 법사(오른쪽)가 좋은인연만들기 모임 운영회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청우불교원 이사장 김재웅 법사가 정교회 좋은벗들과 불교선행연구회 좋은인연만들기회 각 500만원을 기탁했다.

11월 4일 서울 불교선행연구회 사무실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김재웅 법사는 “성금은 금강경독송회 4월 천도법회와 8월 통합법회에 참가한 불자들의 보시금을 모아 마련했다”며 “좋은벗들과 좋은인연만들기회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96년 12월 창립한 좋은벗들은 국제평화, 인권, 북한 난민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좋은인연만들기회는 98년 3월부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 장충단 공원에서 결식노인 1천여명에게 점심공양을 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해요”

현대불교신문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보내, 보시중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읍시다.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 * 자동이체 신청서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 (02)737-8881 (02)737-0090, 팩스(02)737-0697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 어떻게 참여하나

-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1구좌 1만원입니다.
-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온라인구좌/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좋은벗풍경소리 (02)723-9836

■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기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사무소) 봉사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집합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 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현물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현물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해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야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